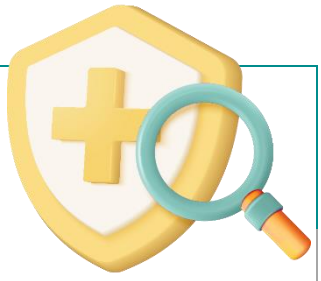
하나 Biweekly 제약/바이오(1월 중간)



제약바이오 Biweekly | 2026년 1월 19일

Analyst 김선아 seona.kim@hanafn.com

RA 유창근 changkeunyoo@hanafn.com

대형 행사 종료, 상승장의 신호탄은 누가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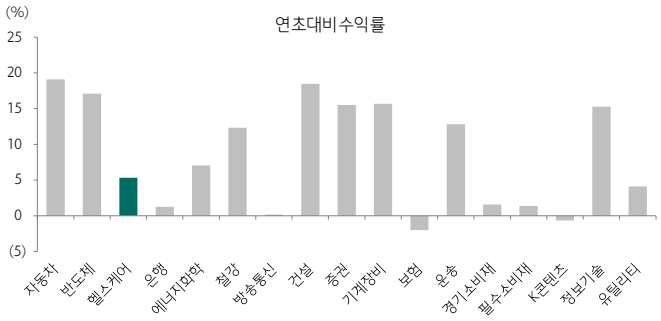
1) 2026년 1월 제약/바이오 산업 중간점검

- **우리만 재미 없는 JPMHC** 이 행사를 노렸던 것인지, 연초라서인지 1월2일부터 JPMHC 종료까지 약 2주 동안 무려 20건 이상의 글로벌 빅파마와의 기술이전 또는 공동개발 소식이 있었다 (5-6페이지). 그 사이 국내 기업과의 성과는 한 건도 없었다. JPMHC 행사는 각 기업들의 26년 계획과 중장기 비전을 소개하는 자리인 만큼, 초대장을 받고 참석했다고 하여 계약을 맺고 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12월부터 이월되어 온 계약 건들이 이 행사를 앞두고 체결될 것이라는 기대는 있었던 듯 하다. 자동차, 반도체, 로봇 등을 포함한 타 섹터가 강세를 보이며 제약/바이오 종목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도 있지만, 우리 섹터에서 어떠한 성과도 없었기 때문에 수급 탓만 할 수는 없다. 앞으로는 각 기업들이 다양한 학회나 컨퍼런스에 참석할 예정이나, JPMHC와 파트너십 위주 행사는 3월 말 Bio-Europe 정도가 될 듯 하다.
- **JPMHC 이후 주가 동향.** 작년 JPMHC 전후로 주가 동향을 살펴 보았을 때, 차주부터 서서히 주가는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스피 헬스케어의 경우 실적 의존도가 높고, '25년은 트럼프의 의약품 관세 압박과 약가 인하 우려로 JPMHC와 무관하게 주가가 부진했다. 반면 코스닥 헬스케어는 상승 추세에서 JPMHC 기간 동안 잠시 주춤했지만 다시 빠르게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25년 상반기 빅이벤트였던 올릭스-Lilly L/O는 2/7, 알테오젠-AZ L/O는 3/17, 에이비엘-GSK L/O는 4/7에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JPMHC 이후 1월 말부터의 주가 회복은 기대감으로도 충분했다. 지난 번 Biweekly에서도 설명하였지만, 적어도 올해 상반기의 대외적인 분위기는 제약/바이오 시장에 우호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단순한 주가 회복이 아닌 추가적인 상승률까지 기대할 수 있는 장이 형성되려면, 그 신호탄이 될 대형 기술이전이 필요하다. 현지시간 1/15에 JPMHC의 알테오젠 발표를 통해 빠르면 이번 주에 대규모로 기술이전이 있을 것이라 확인한 바 있으니, 기대해 봄직하다.
- **약가 인하 정책에 대한 불안한 분위기 고조.** 25년 12월에 결정 지을 계획이었던 약가 인하 정책과 관련하여, 제약업계와 정부가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중이다. 제네릭 판매가 R&D 비용 조달에 중요한 수단이었던 만큼, 약가 인하로 인한 수익 감소를 피할 수 없다. 약가 인하 비율의 기준이 되는 혁신형 제약기업 리스트에는 매출 자체가 낮아 외부 자본 조달에 의존하는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R&D 투자비 절대 값이 현저히 높고 신약을 보유한 제약기업이라 하더라도 추가 약가 인하 대상이 될 수 있다. 지금 분위기라면 대부분의 제약사가 추가 약가 인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합의 방향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다.

2) 2026년 1월 추천 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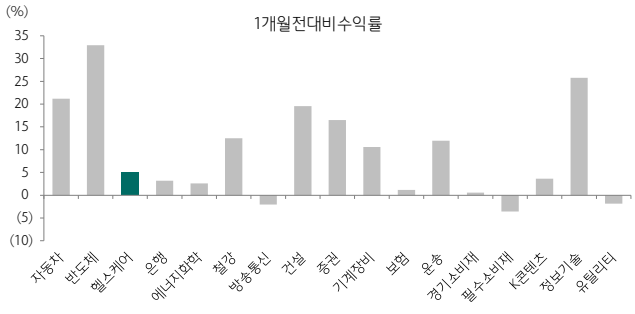
- **1월 코스피 Top pick(유지): 한미약품, 삼성바이오로직스.** 1) 한미약품은 JPMHC에서 MSD가 MASH 치료제 에피노페그듀타이드(MK-6024)를 언급하지 않아 주가가 크게 하락하였다. 단순한 이유로 하락한 만큼 MSD의 2/3일자 4Q25 Earning Call로 중요도를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삼성바이오로직스는 JPMHC에서 '26년 비전을 발표하며 곧 6공장 착공할 것임을 시사 했지만 이사회 결정이 남아 있다. 1/21 실적 발표를 앞두고 소식이 있을 가능성을 보고 있다.
- **1월 코스닥 Top pick(유지): 알테오젠, 인벤티지랩.** 1) 알테오젠은 JPMHC 후 첫 L/O 소식을 들려줄 가장 유력한 기업이다. 12월26일 옵션 계약 소식이 있었으나, 기존에 논의 중인 기업은 아니었으므로 해당 계약은 1월 L/O에는 지장이 없다. 2) 인벤티지랩도 12월 초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 5인이 증여를 하여 주가 상승 요소가 있을 것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다. 베링거인겔하임이 추가 물질에 대한 개발을 의뢰하여 기술력은 한 차례 검증된 것으로 보인다.

도표 1. 섹터별 연초대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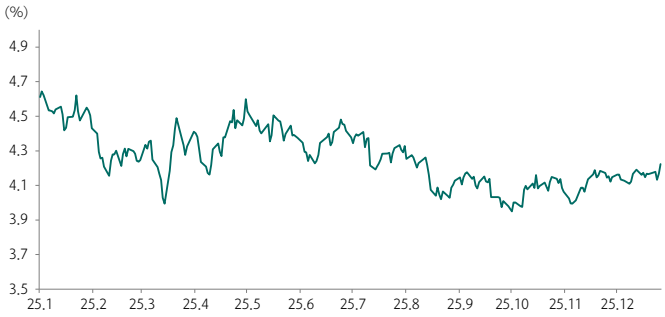
주: 1/16 종가 기준, 자료: Quantiwise, 하나증권

도표 2. 섹터별 1개월전대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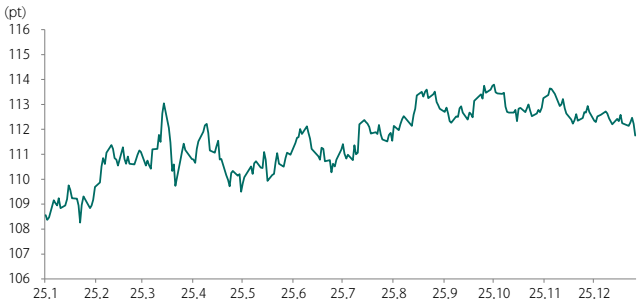
주: 1/16 종가 기준, 자료: Quantiwise, 하나증권

도표 3.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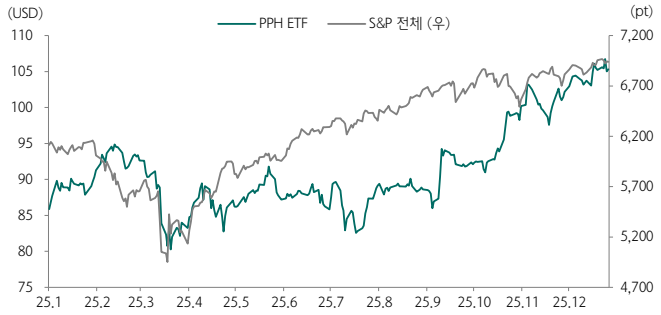
주: 1/17 종가 기준,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4.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선물



주: 1/17 종가 기준,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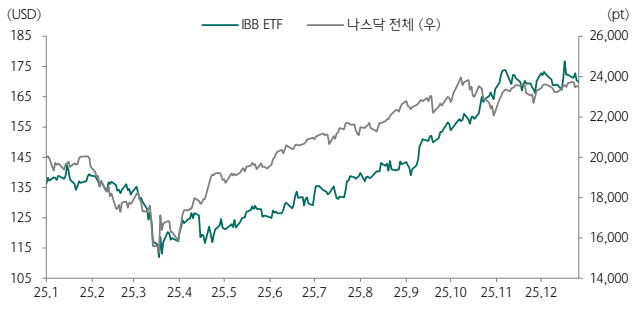
도표 5. VanEck Pharmaceutical ETF (PPH) 지수 (+S&P 전체 지수)



주: 1/17 종가 기준, 미국 상장 제약사 상위 25개 기업 선별 (수정 시가총액 가중 방식)
종목 비중(상위 10개): Eli Lilly(20.73%), Novartis(10.03%), MSD(8.90%), Novo Nordisk(6.44%), Pfizer(4.62%), BMS(4.54%), Abbvie(4.38%), GSK(4.37%), McKesson(4.37%), AstraZeneca(4.34%),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6. iShares Biotech ETF (IBB) 지수 (+나스닥 전체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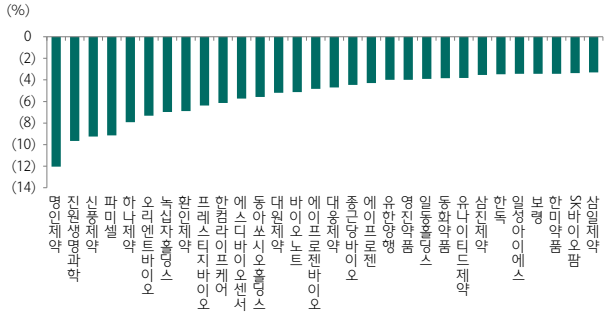
주: 1/17 종가 기준, Nasdaq Biotechnology Index (NBI) 추종 (시가총액 가중 방식)
종목 비중(상위 10개): Vertex(8.63%), Gilead(8.05%), Amgen(7.82%), Regeneron(6.89%), Alnylam(4.55%), Insmed(3.23%), argenx SE(3.00%), Natera(2.65%), Biogen(2.27%), BeOne Medicines(1.94%)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7. 코스피 제약/바이오 연초대비 수익률 순(상위 30개)

주: 1/16 종가 기준, 자료: Quantiwise, 하나증권

도표 8. 코스피 제약/바이오 연초대비 수익률 순(하위 3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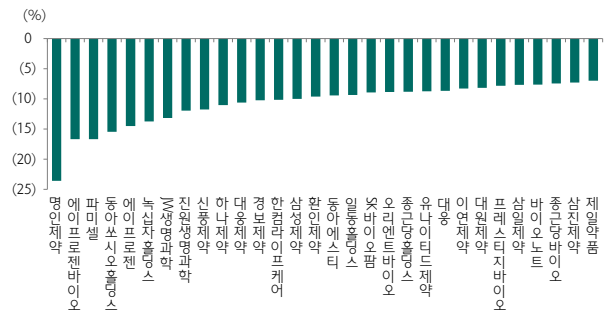


주: 1/16 종가 기준, 자료: Quantiwise, 하나증권

도표 9. 코스피 제약/바이오 1개월전대비 수익률 순(상위 3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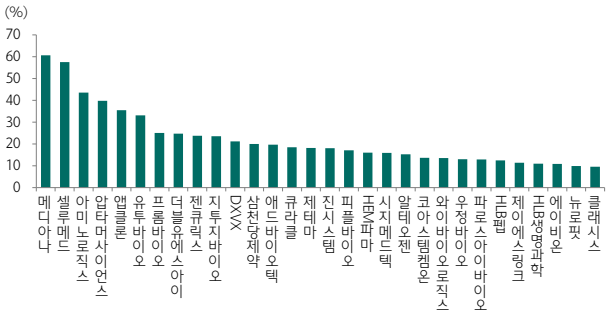
주: 1/16 종가 기준, 자료: Quantiwise, 하나증권

도표 10. 코스피 제약/바이오 1개월전대비 수익률 순(하위 30개)



주: 1/16 종가 기준, 자료: Quantiwise, 하나증권

도표 11. 코스닥 제약/바이오 연초대비 수익률 순(상위 3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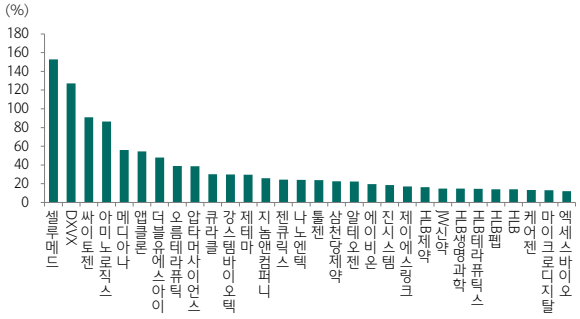


주: 1/16 종가 기준, 자료: Quantiwise, 하나증권

도표 12. 코스닥 제약/바이오 연초대비 수익률 순(하위 30개)

주: 1/16 종가 기준, 자료: Quantiwise, 하나증권

도표 13. 코스닥 제약/바이오 1개월전대비 수익률 순(상위 3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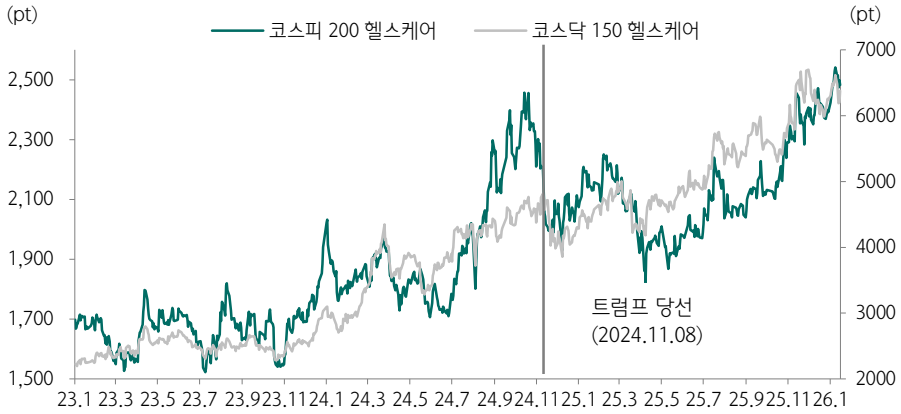


주: 1/16 종가 기준, 자료: Quantiwise, 하나증권

도표 14. 코스닥 제약/바이오 1개월전대비 수익률 순(하위 3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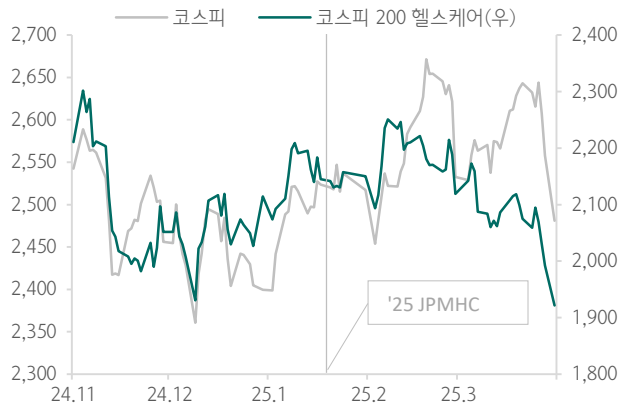
주: 1/16 종가 기준, 자료: Quantiwise, 하나증권

도표 15. 트럼프 당선 전후 코스닥과 코스피 헬스케어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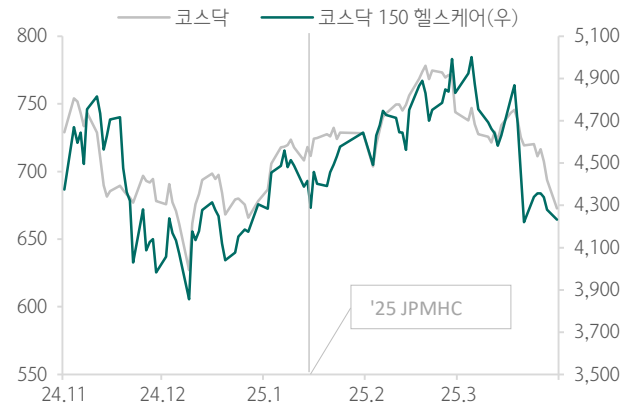
주: 1/16 종가 기준
자료: Quantiwise, 하나증권

도표 16. '25년 JPMHC 전후 코스피 헬스케어 추세



자료: Quantiwise, 하나증권

도표 17. '25년 JPMHC 전후 코스닥 헬스케어 추세



자료: Quantiwise, 하나증권

주요 이슈 및 관련 기업 코멘트 (Biweekly 발간일 1/2 이후) – 기술이전/공동개발계약 위주

[1/5] AbbVie: Suzhou Zelgen(CN)와 삼중특이적 T Cell 엔게이저 기술도입($1.2bn 규모)

- 도입한 기술은 ZG006(alveltamig)으로, (DLL3의 2가지 epitope)x(CD3)인 삼중 타겟에 대한 중국 외 글로벌 권리를 확보. 계약 규모는 최대 $1.2bn.
- ZG006은 재발성 SCLC(소세포폐암) 중국 3상(NCT07189455) 진행 중으로 SoC인 Topotecan과 비교 평가하는 임상을 2025년12월 개시. SCLC에 대해서는 단독, 다양한 병용 조합, 질병 진행 단계에 따라 수 개의 임상 진행 중. 그 외 전립선암에 대해서도 중국 2상 평가 중.

[1/6] Sanofi: Earendil Labs(US)와 이중특이적 항체를 발굴을 위한 공동개발 계약($2.56bn 규모)

- 공동개발 영역은 자가면역 및 염증성 질환 대상 이중특이적 항체를 발굴. Earendil Labs는 AI 기반 바이오테크 기업으로, 주로 단백질 기반 생물학적 제제 후보물질 도출 특화. 초기 계약금 및 단기 지급금 $160mn 포함 총 계약 규모는 최대 $2.56bn.
- 2025년 4월에도 Earendil Labs와 자가면역질환 및 염증성 장질환(IBD) 치료를 이중항체 2개(HXN-1002, HXN-1003)에 대해 $1,845mln 규모의 글로벌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당시 계약은 선급금 $125mln(약 1800억원), 개발 및 상업화 마일스톤 최대 $1,720mln(약 2조4000억원) 수령, 별도 로열티 한 자릿수 후반에서 두 자릿수 초반.
- HXN-1002는 α4β7xTL1A 타겟. 장 염증 반응과 관련된 주요 경로로 난치성 궤양성 대장염 및 크론병 환자에 유효. HXN-1003은 TL1AxIL-23의 염증 유발 인자를 동시 억제. 장염, 피부염 등 다양한 자가면역질환에 치료 옵션이 될 수 있음. 향후 이러한 다양한 조합의 이중특이적 항체 도출될 것으로 전망.

[1/6] Gilead: OncoNano Medicine과 종양 표적 지질 입자 기술 적용 파트너쉽($300mln 규모)

- Gilead의 개발 단계 항암제 중 하나에 OncoNano Medicine의 ON-BOARD 플랫폼 적용하는 것과 관련한 파트너십 계약 체결. 선지급금, 개발 마일스톤, 표적 추가 등을 포함해 최대 $300mn 규모. 로열티 별도.
- ON-BOARD 플랫폼은 micelle 형태의 종양 표적 지질 나노입자이고, 길리어드의 항암제 물질은 무엇인지 공개되지 않음.

[1/7] Insilico Medicine(HKEX 상장): Servier(FR)와 항암제 공동개발 계약 체결($888mln 규모)

- Servier가 Insilico Medicine에 계약금 및 초기 지급금 $32mln 포함 최대 $888mn 규모의 마일스톤 등을 지급(부 내용은 비공개). Insilico의 AI 기반 신약 발굴 플랫폼을 기반으로 새로운 종양 치료제를 발굴 및 개발할 계획.
- Insilico Medicine은 2025년 12월 30일 홍콩증권거래소(HKEX)에 상장하였음.

[1/7] Pfizer: Cartography Biosciences(US)와 항암제 공동개발 계약 체결($865mn 규모)

- Pfizer는 계약금, 단기 마일스톤, 옵션 행사금을 포함해 $65mln 지급할 것. 모든 타겟에 대해 옵션을 행사할 경우 최대 $865mn까지 수령 가능하고, 로열티 별도. 항암 신약을 발굴할 것으로, Cartography는 신약 발굴 플랫폼인 Atlas와 Summit을 활용해 종양 선택적 항원을 발굴하고 검증할 예정. 적응증은 비공개.
- Cartography Biosciences는 비상장 미국 기업으로, Pfizer Ventures가 시리즈B까지 리드하였고 투자 완료 후 3개월 만에 파트너십도 체결함. 시리즈B 투자에는 국내 LG, 롯데홀딩스 CVC, Amgen Ventures도 참여함.

[1/7] Eli Lilly: InduPro와 AI/ML 기반 항암 치료제 개발 계약 체결 ($950mn 규모)

- 최대 3개의 비공개 타깃을 대상으로, 이중항체 ADC 및 다중 특이 T-cell 엔게이져 항암제 개발 공동 연구 진행할 것. 비공개 계약금 포함 최대 $950mn 규모이고 지분투자도 진행함.
- InduPro는 종양미세환경(TME)의 '공간생물학'을 활용한 AI/ML 기반 플랫폼 MInt를 보유. 종양 관련 항원 간 공간적 근접성을 정밀하게 분석해 기본 표적 치료의 한계를 보완.

[1/7~] Revolution Medicines: 인수설 솔솔, NSCLC 치료제 zoldonrasib의 BTD 지정

- AbbVie, Merck 등 Revolution Medicines 인수할 것이라는 보도. 당사자 기업들은 이 소식을 부인하고 있으나, 다른 빅파마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 최종 인수자가 누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
- Revolution Medicines은 저분자화합물 항암제 개발 기업으로, 1월8일 zoldonrasib에 대해 FDA가 임상1상 결과를 기반으로 혁신치료제 지정(BTD)을 부여함. Zoldonrasib은 진행성 KRAS G12D 변이 비소세포폐암 환자 대상 1상 단독투여 코호트에서 유의미한 항종양 활성과 양호한 안전성 결과를 보여준 바 있음.

[1/7] Amgen: Disco Pharmaceuticals(DE)와 암 표적 치료제 공동 개발 계약 ($618mln 규모)

- Amgen이 이미 발굴해 둔 표적을 중심으로, Disco의 플랫폼을 활용해 후보 물질을 발굴 할 것. 상세한 조건은 비공개이나 단계별 마일스톤을 포함해 최대 $618mln을 수령할 수 있고, 로열티 별도.
- Disco Pharmaceuticals은 독일 바이오텍으로, 암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단백질을 규명하는서페이스옴 매핑(surfaceome mapping)을 보유함. Disco 내부 파이프라인은 소세포폐암과 대장암이 위주. 한편 Amgen은 전날 Dark Blue Therapeutics를 인수하여 종양 포트폴리오를 확장한 바 있음.

[1/8] Eli Lilly: Nimbus Therapeutics(US)와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 계약 체결($1,355mln 규모)

- Lilly는 계약금 및 단기 마일스톤으로 $55mln을 지급할 것이고, 개발 단계, 상업화, 판매마일스톤 등을 합쳐 최대 $1.3bn까지 수령할 수 있고, 로열티 별도.
- Nimbus Therapeutics는 비만 및 기타 대사질환을 대상으로 한 AI 기반 신규 경구 치료제 개발 기업. 2022년 10월 AMPK 타깃 저분자 화합물 대사질환 치료제 발굴을 위해 Lilly와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당시 계약 규모는 $4,960mln였음. GLP-1 계열 치료제는 경쟁자 포화 상태이고 치료 효능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중 타겟이나 병용 투여 가능한 새로운 표적에 대한 비만 치료제를 개발할 것으로 예상됨.

[1/8] Eli Lilly: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개발사 Ventyx Biosciences를 $1.2bn에 인수

- 발행주식 전량을 주당 $14에 100% 인수할 예정. Ventyx는 염증성 장질환 대상 경구 치료제와 면역, 심대사, 신경퇴행성 질환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개발 중. 리드 파이프라인은 NLRP3 inhibitor 저분자화합물 경구 후보물질인 VTX3232로 파킨슨, 뇌졸중 등 임상2상 진행 중. VTX3232은 2024년 사노피로부터 $27mln SI 투자 유치하여 우선 협상권을 부여한 바 있으나, 릴리에게 넘어가게 됨.
- 그 외에도 NLRP3 계열 두 번째 후보물질 VTX2735를 재발성 심낭염 임상 2상에서 개발 중.

[1/8] GSK: Noetik(US)과 비소세포폐암 및 대장암 치료제 개발 계약($50mln 규모)

- 5년간의 전략적 협업 및 AI 모델 라이선스 계약으로, 비소세포폐암과 대장암 분야에서 AI 파운데이션 모델 두 가지에 대한 비독점 라이선스를 확보. 선급금과 단기 마일스톤을 포함하여 최대 $50mln 규모.
- Noetik은 공간 생물학 데이터를 활용해 임상 효능 예측하는 모델을 보유함.

[1/9] Amgen: Dark Blue Therapeutics(UK) 인수 ($840mn 규모)

- 이번 인수로 전임상 단계의 혈액암 프로그램을 확보. 리드 파이프라인은 AML 치료제로서 MLLT1/3 단백질을 표적 분해하는 세레블론(CRBN) 기반의 경구용 저분자 후보물질이고, 26년 내 임상 진입 예정.
- TPD 분야는 Amgen에 23년 합류한 Jay Bradner 부사장의 연구 분야. Dark Blue Therapeutics는 옥스퍼드대에서 스핀 아웃한 영국 바이오텍임.

[1/9] Boehringer Ingelheim: Variant Bio(US)와 유전체학 기반 신장병 치료제 개발 협력 계약 ($120mln 규모)

- Variant Bio는 AI 기반 Inference 플랫폼을 활용해 심장 및 신장질환 분야에서 새로운 치료 표적을 발굴할 것. Variant Bio의 플랫폼은 유전체학 딥 페노타이핑(Deep Phenotyping, 개인의 특징과 표현형 분석)과 다중오믹스(multi-omics, 유전체학, 전사체학, 단백질체학 및 대사체학 등을 종합 활용) 자료를 통합하여 자사 개발한 것.
- 계약 규모는 $120mn이나, 선급금, 단계별 마일스톤 등을 모두 합하면 그 이상이라 답변.

[1/9] Pfizer-Madrigal: Pfizer의 MASH 치료제 ervogastat를 Madrigal이 인수 ($50mln)

- 이번 인수는 권리 양도로, 마일스톤 및 로열티 등 없음. Ervogastat는 DGAT2 억제제 경구용 저분자 화합물로, 중성지방 합성 및 저장 경로의 마지막 단계를 차단하는 기전으로 간 염증을 줄이는 기전을 보유함. Pfizer는 임상2상까지 개발한 후 개발 중단하였음.
- Madrigal은 THR-beta 작용제 기전의 MASH 치료제인 Rezdiffra와 병용 개발할 것.

[1/9] Roche: MediLink Therapeutics(CN)로부터 B7-H3 표적 ADC YL201에 대한 기술 도입 ($570mln 규모)

- YL201은 TME에 선택적으로 활성화되는 TMALIN이라는 링커를 적용하여 개발된 ADC로, 중국에서는 SCLC 및 비인두암(NPC)을 대상으로 2건의 임상3상 진행 중, 미국에서 BTD 지정됨. 계약에 따라 중국 외 지역의 권리를 Roche에 이전.
- Roche는 MediLink Therapeutics로부터 2024년 1월 c-MET 표적 ADC 후보물질인 YL211을 $1bln에 도입한 바 있음.

[1/12] AbbVie: RemeGen(CN)으로부터 PD-1xVEGF 이중항체 기술 도입($5.6bln 규모)

- 중국 기업 RemeGen으로부터 PD-1xVEGF 표적 이중특이항체 RC148의 중국 외 권리를 확보. 계약 규모는 선급금 $650mln, 단계별 마일스톤 최대 $4.95bln로 총 $5.6bln 규모. RC148은 중국에서 진행성 고형암 치료제로 임상2상까지 개발된 상태.
- RC148는 AbbVie의 c-MET ADC Telisotuzumab adizutecan (Temab-A) 와의 병용 탐색 기회, NSCLC, CRC 등 미충족 수요 영역에서 확장성 높음. 한편 Pfizer도 JPMHC에서 25년에 3S bio로부터 도입한 PD-1xVEGF 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함.

[1/12] Lilly: Abivax(FR) 인수 설, 프랑스 재무부 부인 중 ($17.5bln 규모)

- 프랑스 언론 La Lettre에 따르면, Lilly가 150억 유로($17.5bln)규모로 Abivax 인수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 프랑스 경제재정부로부터 외국인 투자 통제 절차에 따라 진행 여부 확인한 후 최종 결정할 것. 이에 프랑스 재무부는 그러한 목적으로 Lilly와 접촉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함.
- Abivax는 염증 조절 microRNA miR-124를 조절해 염증성 사이토카인 수치 정상화시키는 저분자화합물 obefazimod 개발 중. 궤양성대장염에서 유효성 및 안전성이 입증되었고, SoC인 JAKi 대비 안전성, 생물학적제제 대비 경구제형 장점을 보유. 2L, 3L에서 중기 1L로 확대하고 크론병으로 확대함을 목표. P2b상 Top line을 1H26내 공개할 전망.

[1/12] Eli Lilly-NVIDIA: 향후 5년간 총 $1bn을 투입해 공동 연구소 설립하고 협력할 것

- 샌프란시스코에 제약업계 최초의 AI co-innovation lab 설립할 것을 선언. 해당 연구소는 NVIDIA의 바이오 전문 플랫폼인 BioNeMed와 Vera Rubin AI 칩을 활용하며, AI 모델 학습 데이터를 공동으로 생성할 예정.
- '25년 10월 양사는 협력하여 AI 팩토리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Lilly는 여기에더해 Superluminal Medicine, Incilico, Nimbus 등과 AI 플랫폼을 활용한 후보물질 개발 계약도 이어나가고 있어 협력 방법이 더 구체화되는 중.

[1/12] Novartis: SciNeuro(CN)와 BBB 셔틀 기반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개발 계약 ($1.7bln 규모)

- 계약은 선급금 $165mln, 최대 마일스톤 $1.5bln을 포함. 종양학과 방사성 리간드 치료 분야의 추가 거래 가능성을 시사함.
- 한편 Novartis는 '25년 Arrowhead Pharma와 RNAi 치료제 파킨슨병 치료제 후보물질 'ARO-SNCA', BioArctic과 BBB 셔틀(TfR 기반) 기술에 대한 기술이전을 단행한 바 있음.

[1/13] Novartis: Zonsen PepLib Biotech(CN)과 RLT 펩타이드 기반 후보물질 기술 도입(선급금 $50mln)

- 펩타이드 신약의 타겟 등은 미공개. 선급금 $50mln에 미공개 마일스톤과 로열티 수령할것.
- Novartis는 최초의 RLT 신약인 Pluvicto와 Lutathera를 보유하고 있는데, 미국 내 네번째 RLT 생산 시설 구축 계획을 밝히며 방사선의약품 파이프라인을 확대하고 있음.

[1/15] 삼성에피스홀딩스: 신약 후보물질 SBE303 공개, 매년 신약 1개 이상 발굴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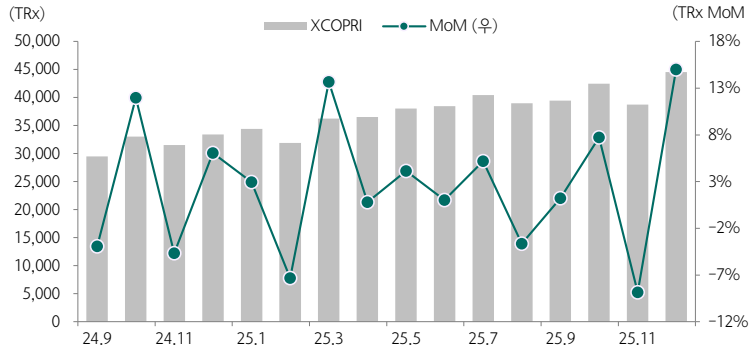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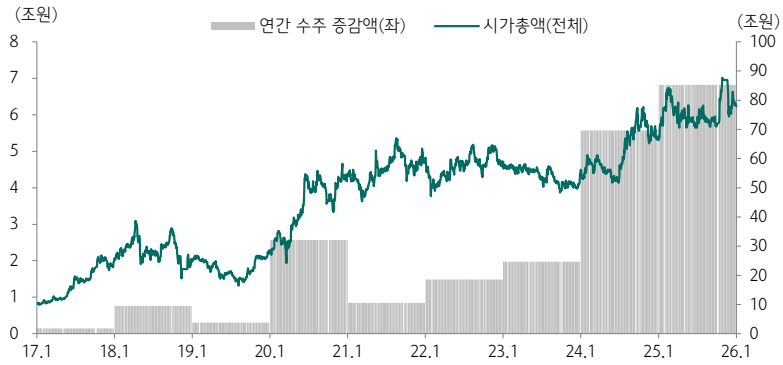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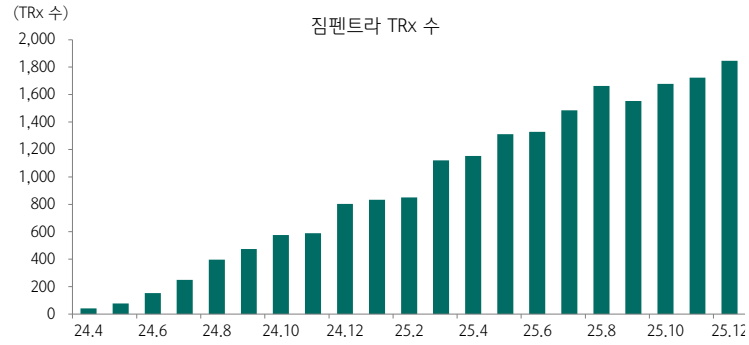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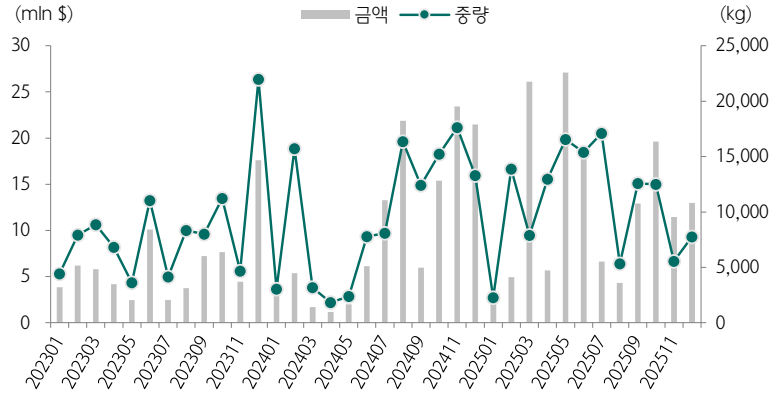
- SBE303은 Nectin-4 표적 ADC로, 인투셀의 OHPAS 링커 및 NxT3 기술 적용. FDA로부터 임상1상 IND 승인되어 26년 내 임상 진행할 것. 그 외 Phrontline로부터 도입한 EGFRxHER3 이중항체 기반 ADC인 TJ108도 개발 중.
- 향후 2030년 까지 바이오시밀러 20종 출시할 것이고, 현재 7개의 블록버스터 바이오시밀러를 추가 개발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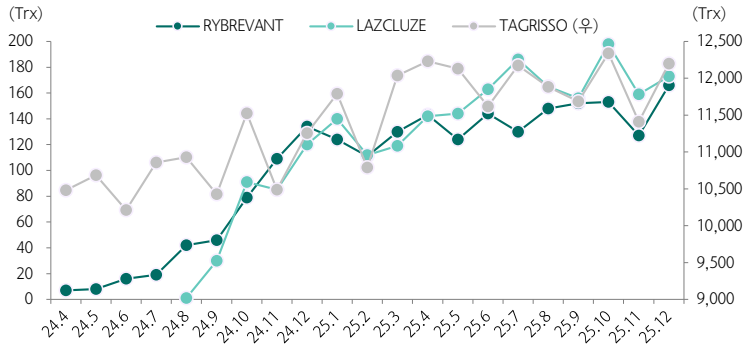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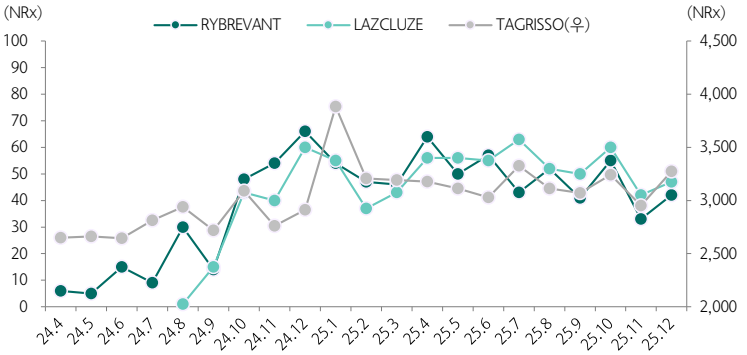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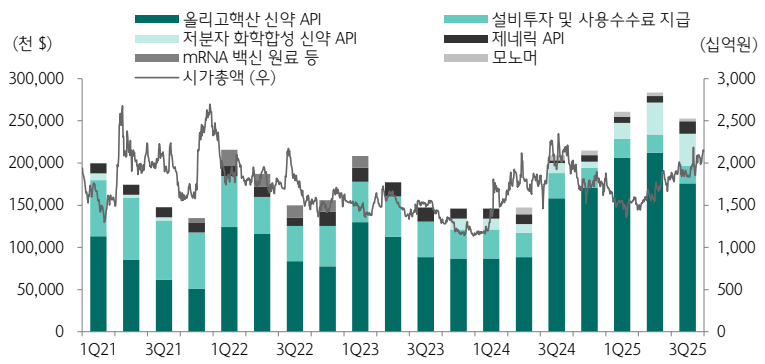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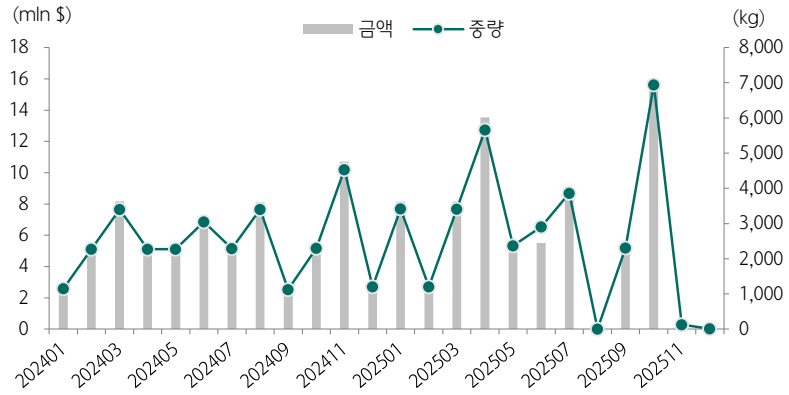
도표 18. 1H26 주요 학회 일정 (추가 확인 후 Biweekly로 업데이트 됨)

월	개최일	학회명	약자	개최지	관련기업*
~~1월~~	~~1월 12일~~	~~JPMHC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44th J.P Morgan Annual Healthcare Conference~~	~~San Francisco, USA~~	~~상세한 내용은 도표 17을 참고~~
2월	02월 23일	World ADC-Europe (유럽 월드 ADC)	World ADC LONDON 2026	London, UK	참가 및 관련 기업 확인 후 추후 작성 예정
	02월 26일	ASCO-GU (ASCO 비뇨기과 학회)	ASCO Genitourinary Cancers Symposium	San Francisco, USA	셀비온
	02월 27일	AAAAI (미국 알레르기, 천식 및 면역학회)	American Academy of Allergy, Asthma & Immunology Annual Meeting	Philadelphia, PA	유한양행/지아이이노베이션 (예상)
3월	03월 17일	AD/PD (알츠하이머/파킨슨병 학회 국제학술회의)	Advances in alzheimer's and parkinson's therapies an AAT-AD/TD Focus Meeting	Copenhagen, Denmark	참가 및 관련 기업 확인 후 추후 작성 예정
	03월 23일	Bio-Europe (바이오 파트너쉽 유럽 행사)	Bio-Europe 2026	Lisbon, Portugal	인투셀
	03월 25일	ELCC (유럽 폐암학회)	European Lung Cancer Congress 2026	Copenhagen, Denmark	유한양행(예상)
4월	04월 10일	ASH (미국 혈액학회)	2026 Highlights of ASH® in AISA-PACIFIC	KUALA LUMPUR, MALAYSIA	참가 및 관련 기업 확인 후 추후 작성 예정
	04월 17일	AACR (미국 종양학회)	AACR ANNUAL MEETING 2026	San Diego, USA	지아이이노베이션, 동아ST, 셀트리온(예상), 에피스(예상)
	04월 28일	Bio-China (바이오 파트너쉽 중국 행사)	Bio-China 2026	Shanghai, China	인투셀
5월	05월 02일	DDW (소화기계 학회)	Digestive Disease Week	Chicago, USA	HK이노엔
	05월 06일	ESMO breast cancer (유럽 유방암학회)	European Society for Medical Oncology Breast Cancer 2026	Berlin, Germany	참가 및 관련 기업 확인 후 추후 작성 예정
	05월 27일	EASL (유럽 간학회)	Europ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the Liver Congress 2026	Barcelona, Spain	한미약품(예상)
	05월 29일	ASCO (미국 임상종양학회)	2026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	Chicago, IL	리가켐바이오(NextCure, Cstone 등), 한미약품(예상)
6월	06월 05일	ADA (미국 당뇨병학회)	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2026	New Orleans, LA	한미약품(예상), 동아ST
	06월 13일	ENDO (미국 내분비학회)	Endocrine Society ENDO 2026	Chicago, IL	참가 및 관련 기업 확인 후 추후 작성 예정
	06월 16일	EACR (유럽 암연구학회)	European Association for Cancer Research	Rotterdam, Netherlands	참가 및 관련 기업 확인 후 추후 작성 예정
	06월 22일	Bio-USA (바이오 파트너쉽 미국 행사)	BIO International Convention 2026	San Diego, USA	인투셀

자료: 하나증권

도표 19. 국내 주요 제약사의 수출 비중, 주요 품목, 관련 지표

기업명	수출 비중	주요품목	관련 지표
SK바이오팜	100.0%	• 엑스코프리(US): 총 매출 80%	[Xcopri 미국 처방수와 월별 변동률]  *자료: Bloomberg
삼성바이오로직스	96.9%	• 로직스: CDMO • 에피스: BS	[로직스 연간 수주 증감액과 시가총액(공시일 기준)]  *자료: Dart, 하나증권
셀트리온	89.7%	• 짐펜트라 매출액 : 4Q24 280억 : 1Q25 134억 : 2Q25 226억 : 3Q25 281억	 * 자료: Bloomberg
녹십자	29.9%	• 주: 알리글로 • 부: 알부민 등	[면역혈청과 그 밖의 혈액 분획물 글로벌 수출 동향]  * 자료: Trass (국내지역 : 충북 청주시/ 품목 : [300212] 면역혈청과 그 밖의 혈액 분획물) * 높은 중량과 높은 금액이 일치할 때 알리글로 향으로 해석

유한양행	20.6%	• 기술료 수익, 원료 등	해외사업부문의 매출은 유한화학 원료 생산 매출 및 그 원료의 수출 그 외 라이선스 수익 [Rybrevant, Lazcluze 월 처방수 (좌,우: TRx)]  [Rybrevant, Lazcluze 월 신규처방수 (좌,우: NRx)] 
에스티팜	95.9%	• 제품(API) 매출 비중 : 수출 매출 78.3%	[분기별 누적 수주잔고 및 시가총액] 
대웅제약	16.8%	• 나보타 수출액 : 총 수출 84% • Evolus 가이던스 : -14% 하향	[화성시(향남 나보타 공장 소재) 미국향 톡신 수출 동향]  *국내 전체 미국향 톡신 전체 수출량 중, 화성시 수출량이 매월 90% 전후반 유지 중 * 자료: Trass (품목: [3002491000] 독소, 톡소이드(toxoid), 크립토독소(cryptotoxin), 항독소(anti-toxin)/ 국내지역 : 경기 화성시/ 국가 : 미국)

주: 수출 비중은 3Q25 기준
자료: 각 그래프에 표시, 그 외 Dart, 하나증권

도표 20. 국내 주요 제약사 실적 컨센서스(2026.01.16 기준, 다음 분기 매출 및 영업이익 모두 상승시 음영 표시) (단위: 십억원)

기업명	시가 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4Q24	3Q25	4Q25F	2025F	2026F	4Q24	3Q25	4Q25F	2025F	2026F
셀트리온	48,271	1,064	1,029.0	1,267.8	4,101.2	5,050.2	196.4	301.4	426.9	1,122.8	1,632.2
삼성바이오로직스*	90,128	1,256.4	1,660.2	1,308.8	4,436.3	5,291.3	325.7	728.9	586.3	2,065.6	2,440.3
(TP: 2,050,000원)				(F. 1,272.1)	(F. 4,543.4)	(F. 5,439.3)			(F. 560.5)	(F. 2,100.7)	(F. 2,655.9)
삼성에피스홀딩스*	16,199	nr	nr	418.5	1,661.1	1,979.8	nr	nr	96.8	443.6	501.5
(TP: 610,000원)				(F. 418.5)	(F. 1,661.1)	(F. 1,979.8)			(F. 96.8)	(F. 443.6)	(F. 501.5)
유한양행	8,629	496.1	570.0	587.9	2,235.3	2,442.7	-11.8	22.0	47.9	128.3	186.3
녹십자	1,873	440.9	609.5	464.2	1,936.0	2,096.8	-10.1	29.2	-1.2	61.7	90.3
한미약품	5,592	351.6	362.4	400.9	1,522.7	1,631.8	30.5	55.1	61.3	237.8	268.2
(TP: 540,000원)				(F. 389.8)	(F. 1,504.3)	(F. 1,569.9)			(F. 65.3)	(F. 239.9)	(F. 280.9)
대웅제약	1,903	367.9	411.8	402.9	1,579.9	1,744.2	38.7	56.9	44.0	200.3	230.9
HK이노엔	1,330	235.8	260.8	284.8	1,057.3	1,140.7	24.4	25.9	36.1	107.6	124.9
종근당	1,150	415.4	429.8	428.1	1,686.3	1,756.1	6.8	21.0	15.8	72.1	86.4
휴온스글로벌	591	202.5	211.2	nr	nr	nr	26.3	20.3	nr	nr	nr
동아에스티	476	178.6	215.9	189.3	734.1	823.7	-7.3	14.0	7.2	35.0	45.7
보령	746	256.9	280.0	263.5	1,035.6	1,093.3	14.6	29.4	24.3	90.0	107.6
SK바이오팜	9,429	163.0	191.7	197.2	714.5	911.4	40.7	70.1	53.7	215.9	334.1
(TP: 160,000원)				(F. 190.6)	(F. 703.0)	(F. 934.1)			(F. 48.3)	(F. 205.9)	(F. 382.0)
동국제약	748	210.9	226.8	233.2	917.2	1,013.0	17.7	24.8	24.7	97.0	114.3
에스티팜	2,534	115.7	81.9	126.8	328.8	401.0	22.8	14.7	25.9	54.4	71.4
셀트리온제약	2,700	135.6	138.2	nr	nr	nr	10.5	16.1	nr	nr	nr
JW중외제약	659	187.9	200.0	nr	nr	nr	18.1	32.0	nr	nr	nr
일동제약	1,234	155.7	145.5	142.8	554.1	588.7	8.4	6.8	10.5	26.1	37.2
대원제약	254	145.1	143.9	154.9	600.6	637.9	3.2	-10.4	1.4	-1.1	14.2
제일약품	219	186.6	134.8	nr	nr	nr	2.4	9.8	nr	nr	nr
삼천당제약	6,545	55.2	58.0	nr	166.0	246.0	-0.5	3.4	nr	4.0	56.0
바이넥스	454	36.0	45.4	nr	180.8	228.1	-7.1	0.2	nr	5.9	24.9

주1: 3Q25→4Q25F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개선되는 것으로 추정된 종목은 녹색 음영 표시
주2: Coverage 종목의 Forecasting은 "F."으로 표시
*삼성바이오로직스 컨센서스 추정 기관 8개, 삼성에피스홀딩스 컨센서스 추정 기관 1개
주3: 종목 선정: 2025년 9월 기준 자산총액 상위 10조 이상 +a(임의) 중 선정 (제외 종목: 지주사, 60% 이상의 매출이 의료/미용기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인 종목 등)
자료: QuantiWise, FnGuide, 하나증권

Coverage 및 관심 종목 월간 코멘트

삼성바이오로직스 (TP 2,050,000원): 1/21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사회 승인을 통해 6공장 증축 소식 기대

- 삼성바이오로직스 1월 초 예상 실적 발표 및 JPM에서 사업 계획 발표하면서 주가 회복할 것으로 예상. 주가 회복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6공장 착공 소식일 것. JPMHC에서 6공장 증축과 관련한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1/21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사회 승인이 이루어진다면 반가운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
- 4Q25 실적은 OPM 50% 유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연말 특이적 비용과 GSK 시설 인수에 소요된 지급 수수료 등의 비용을 고려해 44% 수준일 것으로 예상함. 4공장 full 가동 효과 confirm, 5공장 수주 현황 등을 가늠할 수 있는 OPM 50% 재현 여부는 1Q26 내 미국 록빌 시설 인수 후 약 300명의 미국 임직원 수 증가로 인한 인력 비용, 설비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삼성에피스홀딩스 (TP 610,000원): Nectin4-ADC SBE-303부터 시작된 신약 개발 스토리

- 이번 JPMHC 후 신약 SBE-303에 대한 소개가 있었음. SBE-303은 예상대로 방광암 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Nectin4를 표적으로 하고, 인투셀의 링커와 NxT3를 적용하였다. FDA IND 승인됨에 따라 26년 내 본격적으로 임상1상을 수행할 것으로 보이고, 환자 모집이 빠르게 이루어진다면 연말 EMSO 등에서 중간 결과 발표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에피스홀딩스는 연간 1개 이상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임상 스케줄에 계속 추가할 계획.
- 바이오시밀러도 유럽에서는 직판 구조로 제품을 하나씩 변경하는 중이고, 미국은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으나 오가논 인수설이 있었던 바와 같이 결국은 간판에서 직판으로 구조를 변경할 것으로 전망.

알테오젠 (TP 640,000원, 상향): 빠르면 차주 1건 이상의 기술 이전 이벤트 기대

- 분쟁 현황: 할로자임의 2차 특허 보정 기한 2026/02/16. 14개의 PGR은 예상대로 최초의 PGR과 같은 스토리로 흘러가는 중. 패밀리 특허이므로 결과는 동일할 것. 독일 가처분 명령, 영국은 STAY, 네덜란드 및 프랑스는 무효 심판 청구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보임. 제조방법에 대한 미국 IPR 청구는 중요한 특허가 아니므로 집중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함.
- 시장은 추가 분쟁 가능성과 현재 특허 분쟁 상황으로 인해 코스피 이전 상장을 위한 거래소 심사에서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하는 것으로 보임. ALT-B4 물질특허에 대해서는 MDASE 무효심판만큼 예비판결을 받기 쉽지 않을 것(무효성 인정)이라 보고서로 언급한 바 있음. 12월26일의 옵션 계약은 기존에 논의 중이던 파트너쉽에서 나온 것이 아니므로, JPMHC에서 전태연 회장이 언급한 바와 같이 이르면 차주 내 1건 이상의 기술이전 이벤트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

리가켐바이오 (TP 220,000원, 상향): Enhertu 계열의 일관된 부작용으로, 대체 플랫폼에 대한 관심 급증

- 회사는 추가 L/O를 위해 ADC Bio Better 전략과 Target Exclusive Package Deal(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되, 타겟에 대한 독점 계약)로 파트너쉽을 시도하는 중. LCB14(IKSUDA, HER2)의 Enhertu 불응성 환자에 대한 유효성 입증, NextCure와 공동개발 중인 B7-H4 ADC에 고용량 코호트에 대해 추가 승인 획득, LCB71(Cstone, ROR1)의 Indication 확대 등 각 파트너사의 임상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JPMHC에서는 J&J의 어떤 언급을 확인하긴 어려웠으나, LCB84 부작용 평가가 48개월이므로 계획된 임상 종료일은 2025.10.05임. 따라서 연내 J&J의 R&D 계획은 지속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음, 그 외 5월 ASCO에 다수의 파트너사가 참석하여 주요 임상 데이터를 발표할 것으로 기대되니, 참고할 것 (1월 중순 초록 제출 마감).

디앤디파마텍 (Not Rated, 관심종목): MASH 치료제 DD01, 뇌질환 치료제, RLT 등 비만 이후에도 관심 가질 파이프라인 다수

- MASH 치료제는 궁극적으로 Fibrosis 개선을 보여줘야 하고, Top line 발표는 26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음. 투약은 종료하였고, Top line 발표 시기는 5월경. JPM 행사에서 이 MASH 치료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발표하고 L/O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니 참고할 것.
- JPMHC에서 Pfizer가 노골적으로 Ultra-Long-Acting에 관심 가짐을 보이며 주가 하락. 그러나 MASH 치료제 외에도, NLY02 (퇴행성 신경질환 타깃, RIPK2 선택적 저해), Lilly가 관심 보이는 RLT 개발사 Z-alpha의 지분 보유(15%)하고 있으니 참고할 것. NLY02는 공동개발사 퍼스트바이오가 내년 1분기 기술성평가 확보하고 5~6월 코스닥 예비심사 청구하는 계획인 만큼, 상반기에 L/O 소식이 있을 가능성도 높다는 판단.

셀비온 (Not Rated, 관심종목): 키트루다 병용 첫 환자 투약, 2월 ASCO-GU에서 임상 결과에 대한 많은 관심 모을 것

- 임상2상 단독 투여 CSR 보고서 결과를 바탕으로 12월30일 예정대로 국내 식약처에 조건부허가신청 완료. 26년 하반기 국내 출시를 기대함 (현재 플루빅토 국내환자 1회 투여 3천만원, 임상 기준 최대 6회 투여). 상세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2월 26일-28일 개최되는 ASCO-GU(San Francisco, USA)에서 발표할 예정.
- 키트루다 병용 임상(국내) 1상도 IND 승인 받았고, 임상수행기관에서 심의도 통과한 상태. mCRPC 환자 30명 대상 pre-Taxane 대상 임상하여 2L 진입 노릴 것. 1월 내 첫 환자 투약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임상2상 성과가 매우 우수하고, 키트루다라는 신뢰도 높은 약물과의 병용 투약하므로 빠르게 환자 모집하여 '26년 하반기 내 임상1상 중간 결과 발표까지 기대함. 중간 결과 성과에 따른 Merck로의 기술이전도 기대. 키트루다는 연구자 임상에서 플루빅토와 병용 투여 시 mOS를 12.9개월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 P2에서 플루빅토 대비 낮은 혈구 독성을 보였기 때문에 키트루다의 효능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전망.

한미약품 (TP 540,000원, 상향): 여전히 26년 한 해를 이끌 가장 유망한 Top pick으로 보고 있음

- 기존 일정 대로라면 1월 초 중 4Q25 예상 실적을 발표할 것. 4Q25 실적은 별도 기업 모두 3Q 보다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환절기와 겨울이 속한 4Q는 전통제약사가 계절적으로 실적이 우수하게 관찰되는 시기임. 다만 연말 특수적인 비용 증가(PS, 수수료, R&D 비용 처리 등)로 이익은 감소할 가능성 있음.
- 에페글레나타이드(국내 비만치료제 신약)는 12월17일 국내 품목허가 신청하여 26년 하반기 출시가 거의 확정된 상태. 안전성 이슈나 세마글루타이드 대비 효과에서 열위가 없었으므로 무난히 허가를 획득할 것이라 예상함. JPMHC에서 MSD가 MASH 치료제인 에피노페그듀타이드를 pdf에서 제외했다는 이유로 주가가 하락했다면, 2/3일 4Q25 Earning call에서 다시 확인. 연간 가이던스를 주는 때인 만큼, 26년 이벤트 중 하나로 언급할 가능성 높음.

SK바이오팜 (TP 160,000원, 유지): 엑스코프리 성장은 여전, 한국/중국 등 시장 확대가 추가적인 Driving Force

- 12월 엑스코프리 처방량은 다시 회복. 엑스코프리 25년 매출액은 가이던스 상단에 근접할 수 밖에 없음 ($447-450mln). 환율도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26년에도 실적은 꾸준히 성장할 것. 한편 국내에서는 11월 초에 세노바메이트 시판 허가를 획득하였고, 중국에서도 12월 시판 허가 획득. 일본은 9월 IND 신청했으니, 26년 하반기에 시판 허가 받을 것. 26년-27년 꾸준히 매출 상승할 것임을 확신할 수 있음.
- SK바이오팜의 밸류에이션은 한국/중국 시판 허가로 Peer 수준을 회복함. 다만, 1개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여전히 2nd Product 도입은 필요한 상태. 12월 첫번째 RLT 파이프라인 임상 1상 IND 승인되어 본격적으로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 돌입. 2nd Product 없이 기업 가치를 높이는데 신약 파이프라인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함.

지아이이노베이션 (Not Rated): 내년 GI-101a, 102 임상 발표에 주목

- 주력 파이프라인이던 GI-102의 경우, SC 단독 투여 1b상, GI-102+키트루다 투약 2a상, GI-102+엔허투 투약 2a상, '26년 내 임상 발표 계획. GI-102+키트루다 병용의 경우 최근 빅딜로 큰 주목을 끌었던 Innovent의 IBI363과 기전이 유사해지기 때문에 기술이전 가능성과 규모를 가늠하는데 매우 중요한 임상이 될 것. 임상 종류 후 Top line 확인되는 대로 공시가 있을 것이니 학회 일정과 무관하게 R&D 타임라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
- GI-101a는 IL-2의 α 수용체는 독성과 면역 약화 기전 때문에, βγ 수용체 특이적인 GI-102에 밀려나 있었음. 그러나 Takeda가 Innovent로부터 인수한 이중항체 융합단백질인 IBI363은 PD-1/IL2Rα-biased 타겟으로서, 항암 효능을 위해서 α 수용체 작용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시장에서 동의를 얻고 있음. 실제로 잠재 파트너사들의 관심이 GI-101a에도 몰리는 분위기로써, 그동안 크게 공개되지 않았던 GI-101a의 임상1상 주요 데이터를 모아 4월 AACR에서 공개할 예정이니 참고.
- 유한양행에 기술이전한 GI-301의 임상2상(만성 자발성 두드러기 환자 150명 대상, 12주간 약물군 및 위약군으로 투약하고, 한국/유럽/아시아 국가에서 다국가 임상을 진행)도 '26년 중 진행될 예정이고, 기술이전도 꾸준히 시도될 것으로 보임.

인투셀 (Not Rated, 관심종목): 에피스홀딩스의 파이프라인에 OHPAS 링커 적용, 마일스톤 수령해야 주가 회복할 것

- 에피스홀딩스가 NxT3를 적용한 ADC를 방광암에 대해 임상1상을 진행하기 위한 IND를 12월2일 FDA 신청하여 승인됨. OHPAS 링커와 공동개발한 NxT3 적용되었음에도 옵션 행사에 따른 본계약(또는 프로덕트 딜)을 체결이나 마일스톤 등 이벤트가 없는 것이 주가 부진한 이유로 판단. 수령이 늦어지는 이유는 NxT3에 대한 마일스톤 비율 책정과 관련된 문제가 아닐까 판단(특허 문제를 에피스가 해결했기 때문).
- 자체 개발 중인 신약에 대해 국내와 미국에 임상1상 IND도 승인된 상태로, Duocarmycin을 적용하여 NxT3 없이 OPHAS 링커의 기술력을 입증할 전망이니 주목할 가치가 높음. 자체 개발 파이프라인과 에피스와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이 내년 중간 결과 발표하는 경우, 휴먼 안전성 및 효능 데이터에 근거해 추가 L/O 가능성 높아질 것. 회사는 새로 꾸려진 BD팀을 통해 Bio-Europe, Bio-China, Bio-USA 등 상반기 파트너십 행사에 참석하여 꾸준히 기술이전을 시도할 것.

펩트론 (Not Rated, 관심종목): 추가 물질을 평가 후 본계약 체결 이루어질 것

- 정정 공시를 통해 본계약 체결이 추가로 최대 10개월(2026년 9월) 더 미뤄질 수 있다고 언급됨. 예상 시기 보다 미뤄진 것은 추가 물질(비공개) 평가에 의한 것임. 기존에 평가하던 터제파타이드(추정) 제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기에 추가 물질에 대한 제형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라 볼 수 있으니, 긍정적으로 조금 더 기다려 볼 것을 제안함.
- 추가된 물질은 다양한 의견이 있으나, 우리는 최근 비만치료제 개발 동향상 Amyline 작용제인 Eloralintide일 것으로 추정함. Tirzepatide를 1개월 제형으로 개발하였을 때 같은 기간으로 병용할 파이프라인이 가장 매력적일 것이라 판단하기 때문. CagriSema의 Tirzepatide와의 H2H 임상 결과 발표(26년 상반기 계획)로 Amyline 작용제와의 병용 필요성을 확인한다면 이번 추가 평가가 매우 중요함을 이해할 수 있을 것.

인벤티지랩 (Not Rated, 관심종목): BI 추가 계약, 1H26 글로벌 빅파마 또는 지역 파마와의 계약도 기대

- 인벤티지랩, 펩트론, 지투지바이오 3개 사가 각자의 파트너와 장기지속형 펩타이드계 물질 제형 공동개발 및 본계약 여부를 논의 중. 그 중 인벤티지랩 또한 다양한 글로벌 빅파마 또는 지역 파마와 공동개발/기술이전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임.
- 베링거인겔하임에 전달 받은 후보물질에 대한 첫 번째 제형을 개발하여 전달하였고 11월에는 그에 따른 추가 물질 개발 계약을 체결함. 개발 속도와 완성도에서 만족하였음을 보여주는 근거라고 판단됨. 최근 글로벌 빅파마 및 다수의 Local pharma(ex. 자체 개발 펩타이드계 약물을 보유하는 또는 Semaglutide 이용하려는)도 공동개발 논의가 활발히 이루지고 있어, 1H26 내 계약 체결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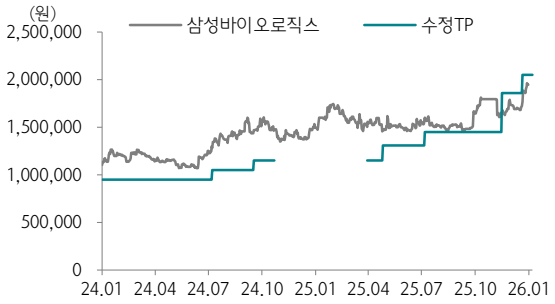
도표 21. Coverage 및 관심 종목의 1Q26-2Q26이벤트(2026.01.16 종가 기준) (단위: 원)

기업명	TP	주가	상승 여력	1Q26	2Q26	비고
삼성바이오로직스	2,050,000	1,947,000	5%	• ~~1월 초 4Q25 예상실적발표~~ • 6공장 증축 발표 • ~~JPM 행사에서 '26년 전망 발표~~	• 4월 초 1Q26 예상실적발표	• 1/21 실적 발표 주목 (6공장 증축 소식 기대)
삼성에피스홀딩스	610,000	651,000	-6%	• 1/26 4Q25 실적발표 • ~~JPM 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IR Deck 공개~~	• 4월 AACR 참석(예상) • 5월 초 1Q26 실적발표	• 4Q25 예상실적 발표 없음 • 자회사 확대, 학회 발표 등 주목
알테오젠	640,000	518,000	24%	• '25년 이월된 L/O 2건 이상 체결 기대 • 미국 PGR에서 Halozyme의 보정 시도 및 합의 • 2-3월 독일 가처분신청 예비 판결	• 추가 L/O 예상 • 코스피 이전 상장(예상) • 미국 PGR 최종 심결 확인(5월 말-6월 2일)	• 미국 PGR 일정 중 2/16 할로자임 정정 기일 중요 • 신규 파트너사 등장 예상 (10개 이상 논의 중)
한미약품	540,000	436,500	24%	• 1/19 4Q25 예상실적발표 • ~~JPM 행사에서 MSD 발표~~ • 2/3 MSD 4Q25 Earning Call	• 4월 초 1Q26 예상실적발표 • 5월 에피노페그듀타이드 (MASH) P2b Top line 발표	• 4Q25 실적 상승 전망
SK바이오팜	160000	120,400	33%	• 2월 초 4Q25 실적발표	• 5월 초 1Q26 실적발표	• 엑스코프리의 4Q도 매출 상승 이어갈 전망 • 2nd Product 도입은 내년으로 이월된 분위기
리가켐바이오	220,000	166,800	32%	• '25년 이월된 L/O 1건 이상 체결 기대 • ~~JPM 행사를 통한 J&J P1 종료 및 P2 진행 여부 확인~~	• 5월 ASCO 참석 • 6월 Bio-USA 참석(예상) • 추가 L/O 예상	• Bio Better, Package Deal의 경우 언제든 L/O 모멘텀 보유 • 각 파트너사의 개별적 R&D 성과 공개 기대 • 임상 단계 상승 예정 파트너(마일스톤 수령): Ono(LCB97), SOTIO, IKSUDA
디앤디파마텍	NR	92,500	-	• ~~JPM 행사 참가해 발표~~	• 5월 DD01(MASH) P2 Top line 발표	• MASH 파이프라인 DD01의 P2 Top line 발표는 5월 경 예상 (2Q26)
지아이이노베이션	NR	14,110	-	• GI-102 투약 종료 소식 (3개 임상 병행 진행 중)	• 4월 AACR GI-101a P1 공개	• GI 102: SC제형(단독) P1b, 키트루다 병용 P1/2, Enhertu 병용 P2a 진행 중 • GI 301: 유한양행 공동개발 • 4월 AACR에서 GI-101+키트루다 병용 결과 공개 (학회 예상)
인투셀	NR	54,900	-	• 마일스톤 수령 등	• -	• 학회 발표 보다는 파트너쉽 행사를 통한 L/O 논의 (Bio-USA/ Europe/ China 등)에 집중할 것
셀비온	NR	23,100	-	• 키트루다 병용 투약 시작 • 2월/26 ASCO-GU에서 P2 상세 데이터 발표	• -	• 키트루다 병용 투여에 따른 기술이전 기대감 보유 (P1 중간결과 확인이 가능한 2H26 이후 예상)
펩트론	NR	233,000	-	• Lilly와의 본계약 기대	• Lilly와의 본계약 기대	• Lilly와의 평가기간은 정정된 공시 상 최대 '26년 9월로 연기됨
인벤티지랩	NR	80,600	-	• 1건 이상의 공동개발 또는 L/O	• 추가 공동개발 또는 L/O	• 예상되었던 BI 추가 계약은 11월에 체결됨 • 1Q26 내 글로벌 빅파마 또는 지역 파마로 1건 이상 기대
지투지바이오	NR	82,800	-	• 추가 공동개발 또는 L/O	• 추가 공동개발 또는 L/O	• 추가 공동개발계약 기대

주: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은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예상실적 발표하는 기업. 삼성에피스홀딩스는 로직스와의 연결기업일 때 예상실적 발표하였으나, 이번 4Q25 예상실적은 발표하지 않음
자료: 하나증권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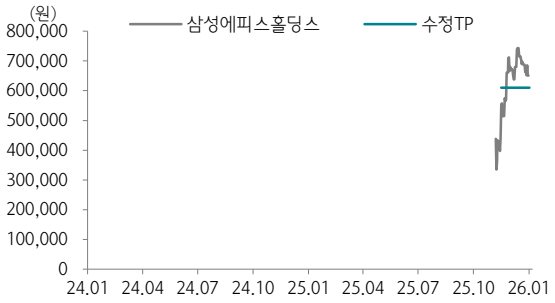
삼성바이오로직스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1.7	BUY	2,050,000		
25.12.3	BUY	1,860,000	-8.44%	-3.76%
25.7.24	BUY	1,450,000	10.83%	1.09%
25.5.13	BUY	1,310,000	15.45%	11.45%
25.4.16	담당자 변경		-	-
24.10.4	BUY	1,150,000	32.34%	17.23%
24.7.25	BUY	1,050,000	35.65%	24.75%
23.10.5	BUY	950,000	19.39%	8.13%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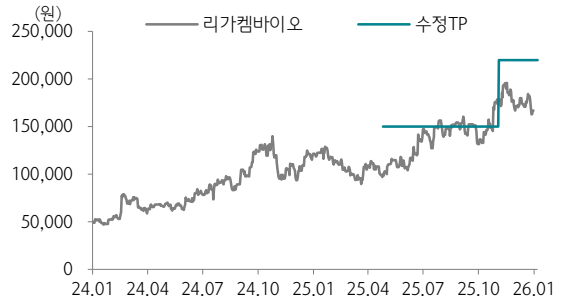
삼성에피스홀딩스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5.12.3	BUY	610,000		
25.11.28	Not Rated	-	-	-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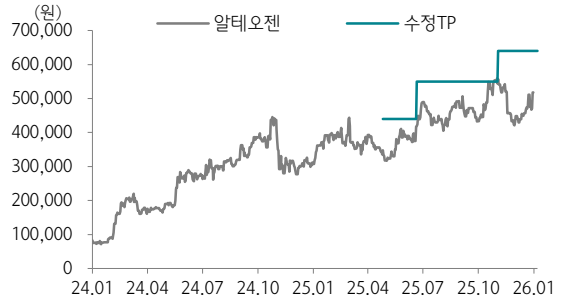
리가켐바이오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5.11.21	BUY	220,000		
25.5.13	BUY	150,000	-8.77%	19.00%
23.5.25	Not Rated	-	-	-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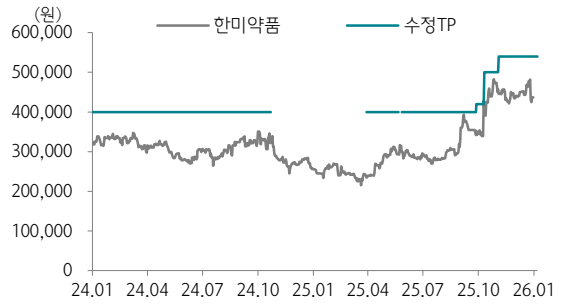
알테오젠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5.11.20	BUY	640,000		
25.7.8	BUY	550,000	-14.86%	1.64%
25.5.13	BUY	440,000	-16.59%	-5.23%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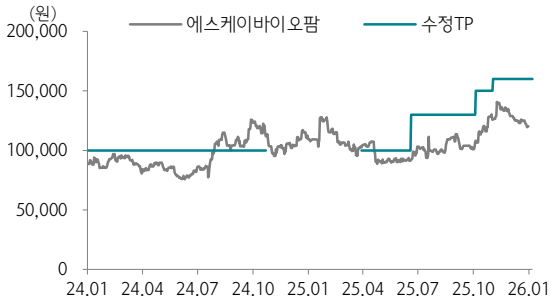
한미약품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5.11.21	BUY	540,000		
25.10.28	BUY	500,000	-10.58%	-3.40%
25.10.15	BUY	420,000	-15.30%	1.90%
25.6.13	BUY	400,000	-24.33%	-1.75%
25.6.9	Not Rated	-	-	-
25.5.9	BUY	400,000	-26.51%	-22.13%
25.4.16	담당자 변경		-	-
24.1.10	BUY	400,000	-26.21%	-11.75%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에스케이바이오팜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5.11.20	BUY	160,000		
25.10.22	BUY	150,000	-20.38%	-13.13%
25.7.7	BUY	130,000	-21.21%	-12.69%
25.6.27	BUY	100,000	-7.70%	-6.30%
25.4.16	담당자 변경		-	-
23.11.10	BUY	100,000	-2.17%	27.90%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2026년 1월 18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선아)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선아)는 2026년 1월 18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의견 비율공시

- **투자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비중축소)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5.75%	4.25%	0.00%	100%

* 기준일: 2026년 01월 15일